

신년사

김의원 (기학연 이사장, 전 총신대 총장)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람보’입니다. 기관총을 들고 적진에 들어가서 수많은 적군을 쓰러뜨리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승리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젊은 아이들은 자기가 마치 람보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 속에서 교회는 마치 람보에게 공격당하는 적군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규 대학을 마친 후 3대1,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신학교를 입학하지만 졸업 후 70~80%정도만이 강도사 자격을 얻어 교회에 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나면 그중에 70~80%, 혹은 90% 정도가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람보의 총탄에 쓰러지듯 그들은 더 이상 교회의 개척은 어렵다며 낙심하고 힘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으며 교회는 점점 노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구교회가 이렇게 몰락해 갔는데 우리도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학문이라는 것도 교회를 위한 학문이 되지 못하면 스스로의 틀 안에 갇혀버려 또다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가기로 했던 뉴욕 대학교에 재미난 칼리지가 있습니다. 소수의 학생만을 뽑는데 그 학교에 들어오면 과가 따로 없습니다. 졸업 시까지 90학점 정도를 이수해야 하는데 제일 많이 따면 메이저가 되고 적게 따면 마이너가 됩니다. 이곳은 여러 학문들을 통합해 가는 과정을 통해 특별한 인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인물들이 그 다음 세대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곳엔 법과를 졸업하고도 다시 3년 여간 히브리어를 공부하여 입학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이 하는 학문의 분야에서 최고임을 자부하면서 스스로의 테두리 안에 우리의 학문을 가둬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자들은 많지만 교회를 향하여서 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학연의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학교 교수들 보다 10~15년 정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빠릅니다. 목회자들은 교회 유지에 급급하여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틈이 없고, 신학교 교수들은 신학생 양성에만 집중하여 목회자에게 대주기만 바뻐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믿는 자로써 이 세상의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통찰하여 볼 수 있습니다.

20년 뒤에 한국사회는,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여러분의 안목이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교회 밖으로 향하였으면 합니다. 10년, 20년 뒤의 우리사회를 읽어내고 방향제시를 하지 못할 때 한국교회는 결국 서구교회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장차 한국교회가 유럽형이 될 것인가, 남미형이 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유럽형이 된다는 것은 노령화가 되어 고사하는 것이고, 남미형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토착신앙화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 학문연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각기 전공을 가지고 교회를 돕는 학문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재까지는 교회를 돕는 학문의 장은 우리 주변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기독교 학문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분야를 만들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준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자는 이런 일에 교회가 펀드를 조성하여 학문연구에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을 짓는 데는 물질을 써도 사람을 키우는 일에는 물질을 많이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적은 물질이라도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참여하고 글을 쓰고, 세미나를 개최하며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주면 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환경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

립니다. 결국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문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교회 밖의 환경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많은 교회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목회자들은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글을 쓰고 담론할 때 담임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초빙하여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학문을 쉬운 말로 설명하며 하나의 큰 물꼬를 틔워 주는 연구소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단법인화 하는 사업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 기독교 학문연구소가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귀한 기관으로써 미래의 방향을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은 일반 신학교 교수들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단순히 앞선 시각으로 끝나지 않게 좋은 글들과 발표를 통하여 제시하셔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선도해 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